

다올 선박

2026.04.05 [816호]

DAOL 다올투자증권

여럿 선종(LNGc, 가스선, 탱커, 컨선)과 미국 NGLS 모두 나온 한 주

조선|기계|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이준범 junebum34@daolfn.com

코멘터리 of 조선

▶ *VLCC와 5,000-TEU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상승*

① VLCC와 5,000-TEU 컨테이너선 신조선가가 올랐고, 신조선가지수도 182.26P로 소수점 상승했습니다.

▶ *그래도 계속 되는 LNG 발주*

② 20여 척의 LNG선을 발주할 계획이었던 Woodside는 용선 발주처로 Maran과 Seapea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각각 최소 2척을 발주합니다. 양 발주처 모두 이미 각각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에 LNG선을 발주했습니다.

③ 일본 INPEX가 인니 Pertamina와 MoU 데드라인을 연장하면서 Abadi LNG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합니다. 중동 에너지 위기의 영향으로 보이며 인도네시아에서 9.5MTPA가 나옵니다.

④ 올해 벌써 35척의 LNG선이 발주된 것으로 집계 됩니다. 전쟁 이후에도 발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은, LNG 물동량 붕괴 - 계선 증가 - 운임 하락의 단기 리스크에도 중장기 시장 전망을 바라보는 것이기에 고무적입니다.

▶ *VLGC도*

지지난주에 VLGC 투자 의향이 크게 늘었고, 다수의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했는데

⑤ 삼성중공업이 JP Morgan으로부터 VLGC 2척을 수주합니다. 2029년 납기의 신조선가는 113백만달러로, 클락슨 111백만달러보다 높습니다.

⑥ HD한국조선해양도 VLGC 2척과 MGC 2척의 전자공시를 보고합니다. 신조선가가 VLGC는 116백만달러로 좋고, MGC는 79.4백만달러로 클락슨의 71백만달러보다 크게 높습니다.

▶ *탱커 발주 강세 계속*

⑦ 대한조선은 전자공시로 2029년 9월 납기 수에즈막스탱커를 91.5백만달러로 수주한 것을 알립니다.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합니다!

⑧ 또한 대한조선에 3월초에 3호선 옵션행사한 Laskaridis가 4호선(만기 4월 중순) 발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합니다.

⑨ 다만 팬오션은 중국 Qingdao Biehai에 VLCC 2척을 발주합니다. 보도는 127백만달러, 팬오션의 투자공시에서는 120백만달러였습니다.

⑩ Shell은 20여척의 MR 탱커 발주를 중국 Hengli 등과 협의 중입니다. 노후선 교체발주랍니다.

▶ *대형 컨테이너선 수주*

⑪ 22척의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를 진행해온 ONE은 전쟁 등으로 이번 신조 투자를 6척으로 줄입니다. 그러나 이 6척의 15,000-TEU[LNG D/F]를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것으로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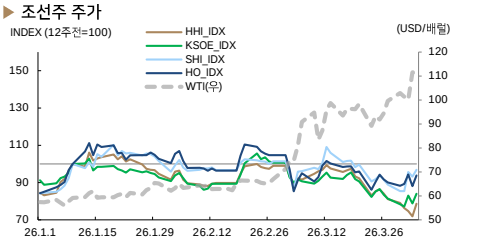
▶ *MASGA. NGLS(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⑫ NGLS 개념설계 입찰에 Vard-한화필리 컨소시엄과 GD의 Nassco-삼성중공업-디섹의 2개 컨소시엄이 선정됩니다. 2027년 3월까지 개념설계를 마치고, 이후 다음 프로세스로 이어집니다. 척당 150백만달러, 발주 규모는 15~30척에 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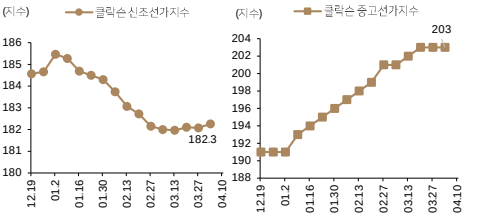
⑬ 사상최대 규모인 68.5십억달러(34척=전투함 18척 + 지원함 16척)의 해군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MASGA가 노리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모니터링 차트

▶ 조선주 주가



▶ 선가지수



▶ 후판, 주요 선종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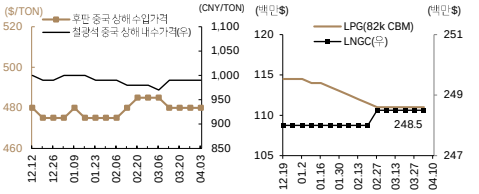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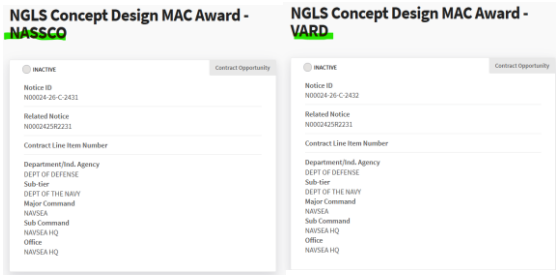


Fig. NGLS(**미 해군 군수지원함**) **개념설계** NASSCO**와** VARD **선정** :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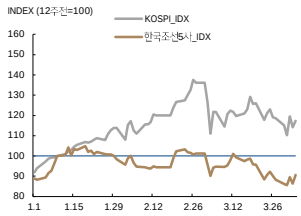
주시 뉴스

✓수주, ?수주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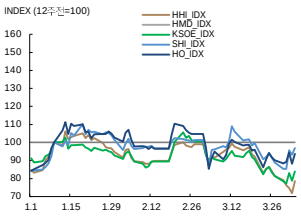
	수주	04월1주 주시뉴스	수주	03월4주 주시뉴스
선가 & 그린십		△ VLCC 130백만달러로 오르는 등, 신조선가지수 182.26P로 소수점 상승		△ 수에즈막스 탱커 신조선가 상승, 벌크 중고선가 상승 △ Exmar 암모니아 D/F 올해 상반기에 2척 인도
LNG	?	▲ Woodside Energy, 4척 LNG선 용선에 Maran, Seapeak 선정 추정. Seapeak은 SHI에 발주 ▲ Abadi LNG 프로젝트 가속. Inpex와 인니 Pertamina MoU 연장 △ Golden Pass LNG 2026년 2분기 첫 수출 예정 △ Asyad Shipping,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1번째 LNG선	✓ ✓	▲ Celsius Tankers, 삼성중공업에 LNG선 2척 추가 발주하며 선대 26척으로 확대 ▲ 한화오션, Maran Tankers로부터 VLCC 3척 및 LNG선 2척 수주 ▲ 미국 LNG 인프라 승인 절차 간소화 추진. 미국 AI 데이터 센터의 95%가 가스에 의존 ▲ Venture Global, 중동 LNG 공급 중단 공략. Plaquemines 수출량 +13% DOE 승인 ▲ Cheniere Energy, 아시아 LNG 공급 위해 Corpus Christi 가동 가속화 ▲ Shell, 2026년 베네수엘라 가스 프로젝트 FID 검토
가스선	✓ ✓	▲ 삼성중공업, JP Morgan으로부터 VLGC 2척 수주 ▲ HD한국조선해양, VLGC 2척, MGC 2척. 좋은 선가에 수주	?	▲ VLGC 신조 투자 관심 증가. HD현대는 KSS 해운 3척 + TMS 2척, 삼성중공업도 2곳 선주 협상
컨테이너선		▲ ONE, 22척에서 6척을 발주 축소. HD현대중공업 수주		▷ ONE, 동원그룹 부산 신항 터미널 지분 인수 및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탱커	✓ ✓ ✓ ?	▲ 대한조선, 91.5백만달러의 역사상 최고가로 수에즈막스 탱커 수주 ▲ 3월 초 대한조선 수에즈막스 탱커 수주는, Laskaridis의 3호선 옵션행사. 4호선도 곧 ▽ 팬오션, 중국에 VLCC 신조 발주 ▽ Shell, 노후 선단 교체를 위한 최대 20척의 MR 탱커 신조 확보 추진	✓	▲ HD현대중공업, Gulf Energy Maritime로부터 50k-DWT급 PC선 6척 수주 ▲ Sinokor Maritime의 Suezmax 부문 진출 가능성 대두 ▲ 대한조선, 2주 연속 Suezmax 탱커 수주 및 2026년 목표 조기 달성 △ NAT, 노후 Suezmax 2척 고가 매각 및 1분기 실적 호조 전망
해양/디펜스	✓ ✓	▲ 한화, 미 해군 차세대 보급함(NGLS) 개념설계 사업 수주 및 미국 조선업 부흥 주도 ▲ 삼성중공업, 미 해군 차세대 보급함(NGLS) 설계 참여 ▲ Trump 예산안, 미국 선박 발주를 역사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조선소 호황 예고		▷ Ryan Lynch, Hanwha Shipping 대표직 사임 및 '최적화' 단계로의 전환 ▲ Golar LNG 전략적 매각 등 가능성. 올해 FLNG 1~2기 계약 기대
기타		△ 튀르키예-이란,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통과를 위한 협의 진행 ▷ 미국 국무부, 북한 제재 위반 선박 제보에 거액 포상금 제시		▽ 미국 USTR의 조선업 과잉 생산 조사 및 관세 부과 가능성. 한국과 일본도 포함 △ 인도-이란, 에너지 운반선 안전 통행 협상

Peer Group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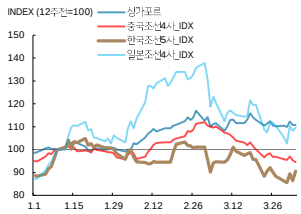
한국 주식시장 vs. 조선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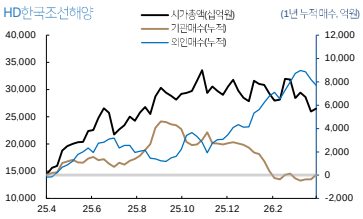
한국 조선5사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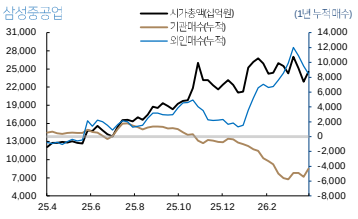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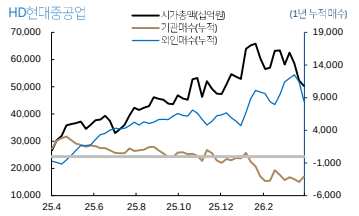
한/중/일/싱 조선주 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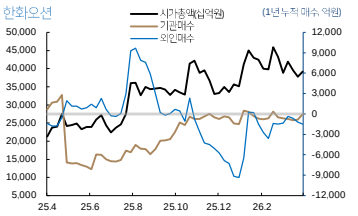


조선 수급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신조 수주(외신, 전자공시 등)

▲ Woodside Energy, 4척 LNG선 용선에 Maran, Seapeak 선정 추정. Seapeak은 SHI에 발주 예정

- 아래의 LNG 섹션 참고

▲ 삼성중공업, JP Morgan으로부터 VLGC 2척 수주

▲ HD한국조선해양, VLGC 2척, MGC 2척. 좋은 선가에 수주

- 아래의 가스선 섹션 참고

▲ 대한조선, 91.5백만달러의 역사상 최고가로 수에즈막스 탱커 수주

▲ 3월 초 대한조선 수에즈막스 탱커 수주는, Laskaridis의 3호선 옵션행사. 4호선도 곧

- 아래의 탱커 섹션 참고

▽ 팬오션, 중국에 VLCC 신조 발주

- 아래의 탱커 섹션 참고

▽ Shell, 노후 선단 교체를 위한 최대 20척의 MR 탱커 신조 확보 추진

- 아래의 탱커 섹션 참고

▲ 한화, 미 해군 차세대 보급함(NGLS) 개념설계 사업 수주 및 미국 조선업 부흥 주도

▲ 삼성중공업, 미 해군 차세대 보급함(NGLS) 설계 참여

- 아래의 해양/디펜스 섹션 섹션 참조

▼ Clarksons 신규 수주 입력 업데이트(한국)

ⓐDH Shipbuilding→Unknown, TK(50k-DWT) 2척

- 아래의 탱커 섹션 참조

ⓑHD Hyundai Vietnam→Gulf Energy Maritime, PTK(50k-DWT) 3척

ⓒHD Hyundai (Medium)→Gulf Energy Maritime, PTK(50k-DWT) 3척

- 아래의 탱커 섹션 참조

ⓓK SB (Jinhae)→Venergy, PTK(50k-DWT) 2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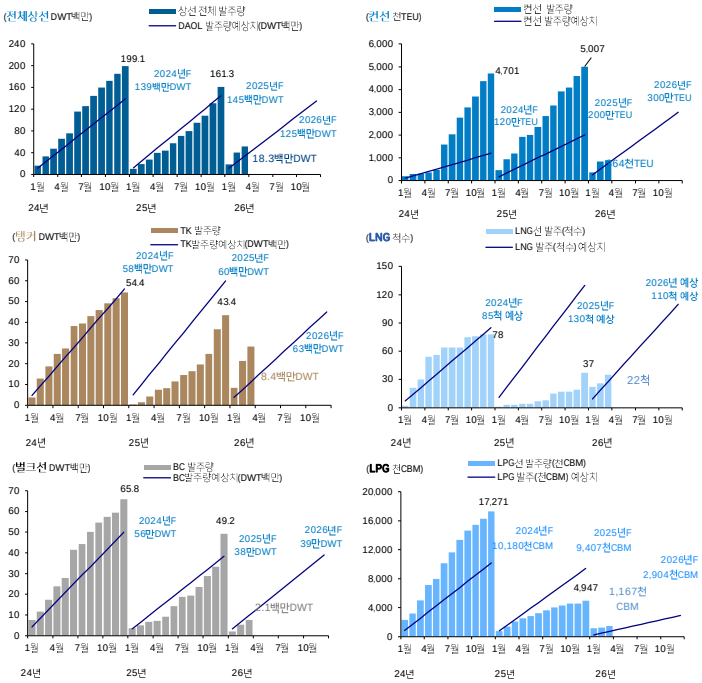
- 아래의 탱커 섹션 참조

ⓔSamsung HI→Global Meridian, LPG(88k-CBM) 2척

- 아래의 가스선 섹션 섹션 참조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클락슨 신조 발주: 한/중/일

주석: 클락슨 입력 DATA만 & 해양은 뉴스/공시 기준

	조선사	수주일자	발주처		선종	선형	인도	척수
2026년 04월 1주								
대한민국	Samsung HI	26.03.31	유럽	Global Meridian	LPG	88k cu.m.	2029	2
	DH Shipbuilding	26.03.30	Unknown	Unknown	TK	157k DWT	2029	2
	HD Hyundai Vietnam	26.03.24	중동	Gulf Energy Maritime	PTK	50k DWT	2028	3
	HD Hyundai (Medium)	26.03.24	중동	Gulf Energy Maritime	PTK	50k DWT	2028	3
대한민국	K SB (Jinhae)	26.03.30	유럽	Venergy	PTK	50k DWT	2028	2
	Kangnam Corporation	26.03.31	한국	Korea Express Ferry	FERRY	1k Pas.	2028	1
중국	Chengxi Shipyard	26.03.31	유럽	Peter Dohle	CONT	3k TEU	2029	2
	Dalian Shipbuilding	26.03.30	중국	CMES Shipping	TK	306k DWT	2028~2030	10
	GSI Nansha	26.03.01	유럽	Gram Car Carriers	PCTC	7k Cars	2028~2029	2
		26.04.02	유럽	Venergy	TK	157k DWT	2028	2
	Huangpu Wenchong	26.04.02	유럽	Erasmus Corp	CONT	2k TEU	2029	2
				Venergy	CONT	2k TEU	2029	2
		26.03.26	유럽	Schoeller Holdings	OFF-SUPP	32k DWT	2029	2
	Shanghai Waigaoqiao	26.04.01	유럽	Venergy	TK	158k DWT	2029~2030	2
	Qingdao Beihai SB	26.03.31	한국	Pan Ocean	TK	319k DWT	2029	1
	Wuchang Shipbuilding	26.03.27	유럽	Norden Projects	OTHERS	23k DWT	2028	2
				Norden Gabon	OFF-SUPP	#VALUE!	2028	2
중국	Dalian COSCO KHI	26.01.19	일본	Kumiai Navigation	BULK	210k DWT	2029	2
	Jiangsu New Hantong	26.03.26	유럽	Erasmus Corp	BULK	82k DWT	2028	4
	Jiangsu New YZJ	26.02.01	아시아	Evergreen Marine	CONT	6k TEU	2029	7
		26.03.26	중국	SITC	CONT	1k TEU	2028	6
	Jiangsu Zhenjiang SY	26.01.01	아시아	Sinarmas LDA	OFF-기타	#VALUE!	2027	4
	New Dayang SB	26.01.01	유럽	Ciner Shipping	BULK	64k DWT	2029	1
		26.02.01	유럽	Ciner Shipping	BULK	64k DWT	2028~2029	5
	New Times SB	26.04.02	유럽	Venergy	PTK	114k DWT	2029~2030	2
	Yangzi-Mitsui SB	26.03.31	일본	Lepta Shipping	BULK	83k DWT	2029	1
	CMJL (Nanjing)	26.01.01	아시아	Eastern Pacific Shpg	CONT	6k TEU	2028~2029	5
		26.03.01	유럽	Gram Car Carriers	PCTC	9k Cars	2028	2
	Hengli SB (Dalian)	26.02.13	유럽	XT Shipping	CONT	6k TEU	2028	1
		26.03.01	유럽	Carlova Maritime	PTK	80k DWT	2028	1
	CMI (Weihai)	26.03.01	유럽	Gram Car Carriers	PCTC	7k Cars	2028~2029	2
	Ningbo Penghong SB	26.03.27	중국	Grand Marine	CONT	1k TEU	2027	1
	Guangxin Equipment	26.01.01	중국	Unknown Chinese	OFF-SUPP	2k GT	2027	2
일본	Kawasaki HI Sakaide	26.02.27	일본	NYK Energy Ocean	LPG	87k cu.m.	2028	1
	JMU Kure Imabari	26.03.01	일본	Unknown Japanese	CONT	9k TEU	2028~2029	2

선가, 실적, 생산능력

△ VLCC 130백만달러로 오르는 등, 신조선가지수 182.26P로 소수점 상승

신조선가지수는 182.26P로 +0.18P 상승
선종별로 VLCC가 130백만달러로 0.5백만달러 올랐고, 5,000-TEU 컨테이너선도 80백만달러로 0.5백만달러 상승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그린십

N/A

▶ LNGc

▲ Woodside Energy, 4척 LNG선 용선에 Maran, Seapeak 선정 추정. Seapeak은 SHI에 발주 예정

Woodside Energy가 진행한 LNG선 신조 입찰에서 Maran Gas Maritime과 Seapeak이 우선협상 대상 선주로 부상
두 선주는 각각 최소 2척씩의 선박을 제공. 이 중 1척은 기존 용선 물량 대체용, 다른 1척은 신규 확장용으로 운용될 예정
두 선주 모두 이미 Woodside와 용선 관계
Maran Gas Maritime은 지난주 한화오션에 LNG선 2척을 발주. 2029년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250백만달러 이상
Seapeak은 삼성중공업에 LNG선 2척을 향후 추가 발주해서, Woodside Energy와의 계약에 투입할 듯
Woodside Energy는 이번 1단계 도입에서 총 5~6척의 선박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결정은 4월 7일 회의
이번 신조선 확보는 1) 미국 내 27.6-MTPA 규모의 Louisiana LNG 프로젝트(2029년 1단계 가동 예정), 2) 호주 Scarborough Energy Project 등 글로벌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른 것임
Woodside Energy는 2030년대까지 24MTPA의 LNG를 공급하여 전 세계 공급량의 5% 이상을 점유한다는 전략을 제시
당초 HD현대글로비스, Mitsui OSK Lines, NYK 등 다수의 선주가 쇼트리스트에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위 2선주가 유력해진 상황임
향후 추가적인 선박 확보를 위해 시장에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소요 물량은 최대 20척에 달할 것으로 관측

▲ Abadi LNG 프로젝트 가속. Inpex와 인니 Pertamina MoU 연장

INPEX와 Pertamina는 2023년 7월 체결한 MoU을 연장하고, Abadi LNG 프로젝트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
중동 전쟁 및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억달러 규모의 9.5MTPA급 Abadi LNG 프로젝트 가속화를 강력히 희망
본 프로젝트는 연간 LNG 생산 외에도 현지 고객들에게 150MMcf/d 규모의 파이프라인 가스를 공급할 예정
인도네시아 Upstream 부문 규제기관인 SKK Migas는 모든 당사자가 프로세스 가속화에 동의했음을 확인
연료에너지자원부 장관 Bahlil Lahadalia는 3월 중순 INPEX CEO Takayuki Ueda와 만나 Abadi 프로젝트를 핵심 의제로 논의
운영사인 INPEX는 이미 해당 가스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주요 EPCI 입찰을 시작
FEED는 2026년 3분기 완료 예정인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2분기까지 앞당기길 요청함
INPEX는 Pertamina의 자회사인 Pertamina Hulu Energi(PHE)와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Upstream 부문 사업을 위한 새로운 MoU를 체결함
INPEX는 이번 협력이 2025년 2월 발표된 'INPEX Vision 2035'에 명시된 천연가스 및 LNG 사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한때, FLNG 후보군 사이트였던 인도네시아 Abadi입니다. 아무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LNG 개발 속도가 붙습니다.

△ Golden Pass LNG 2026년 2분기 첫 수출 예정

QatarEnergy와 ExxonMobil은 미국 텍사스 사빈 패스에 위치한 18MTPA급 Golden Pass LNG 시설에서 첫 LNG 생산을 2Q26 시작 예상
이번 생산은 합작 투자 프로젝트의 6MTPA급 액화 train 3개 중 1번째 train
한국 H-Line Shipping 소속 174k-CBM LNG선 HL Sea Eagle(2025년 건조)이 첫 선적에 투입되며, 이탈리아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Saad Sherida Al-Kaabi는 이번 가동이, 첫 글로벌 LNG 수출이며, 미국 LNG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투자 결정 중 하나라고 설명
Golden Pass LNG 프로젝트는 QatarEnergy가 70%, ExxonMobil이 30%의 지분을 보유
본 프로젝트는 2010년 수입 터미널로 시작했으나 수출 시설로 전환되었으며, 공사 기간이 크게 지연된 바 있음
이번 가동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카타르 내 생산 train 2개가 파손되어 전체 생산량의 17%를 상실한 QatarEnergy에게 긍정적인 소식
카타르 내 시설 피해 복구에는 3~5년이 소요될 전망이며,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중동 전쟁 확산으로 인해 QatarEnergy는 지난 3월 2일 카타르 내 LNG 생산 중단을 발표하고 다수의 구매자에게 force majeure를 선언한 상태

△ Chevron의 호주 Wheatstone 프로젝트, 사이클론 피해로 복구에 수주 소요 예상

hevron은 지난주 호주 서부를 강타한 열대성 사이클론 'Narelle'로 인해 8.9MTPA급 Wheatstone LNG의 전면 생산 재개까지 수주가 소요될 것으로 밝힘
Wheatstone 프로젝트는 지난 2월 글로벌 LNG 거래량의 2.4%를 차지. 일본에 10척, 태국에 1척 등 총 11척의 화물을 인도한 바 있음
Chevron 호주 대변인은 온슬로 인근 Wheatstone 가스 시설이 악천후로 장비 피해를 입어 재가동 작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설명
현재 Wheatstone의 육상 플랜트와 해상 플랫폼 모두에서 피해 평가가 진행 중. 안전한 수리를 위해 전면 생산까지는 수주일이 소요될 전망
15.6MTPA급 Gorgon LNG 프로젝트는 사이클론 영향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1개 train이 3월 29일 복귀함에 따라 현재 3개 train 모두 정상 가동 중
이번 사이클론으로 Chevron 시설 외에도 Santos의 Darwin LNG, Woodside의 North West Shelf 및 Pluto 프로젝트 등 호주 내 주요 LNG 프로젝트들이 영향을 받음
한편, Woodside는 댐피어 항구가 재개방됨에 따라 Pluto LNG 프로젝트의 화물 선적을 재개함

△ 2026년 1분기에 최소 35척의 LNG선 발주

이는 단 3척에 불과했던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한 수치임
Eastern Pacific Shipping, Alpha Gas, TMS Cardiff Gas, Tsakos Energy Navigation, Celsius Tankers, Purus Marine, Maran Gas Maritime 등 여러 독립 선주들이 발주
대부분 확정된 용선 계약을 바탕으로 발주되었으나, 2개 선주는 용선처 없이 투기적 발주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
LNG선 신조선가는 견조하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나, 일부 중국 조선소들은 상당한 할인을 제시
특히 Jiangnan Shipyard는 한국 경쟁사보다 척당 약 20백만달러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175k-CBM급 디자인 6척을 수주
또한 Shell이 최초로 중국 선주(Shandong Shipping) 및 중국 조선소 조합을 선택하여 4척을 발주
미국 생산자 및 수출업자들이 아시아향 운송의 규모의 경제를 위해 200k-CBM를 선호
NYK와 Ocean Yield가 200k-CBM을 8척 발주했으며, 미국의 Cheniere Energy가 용선처로 확인
앙골라 국영 에너지사 Sonangol은 Angola LNG 프로젝트를 위해 1척을 발주하고 2척의 슬롯을 예약하며 선대 교체를 시작
BRS Shipbrokers는 향후 7년간 수요 성장 대응을 위해 총 272척(연간 약 40척)의 추가 발주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
중동 전쟁의 영향과 QatarEnergy의 대규모 신조 프로젝트 지연 여부가 시장의 주요 관심사
드론 공격으로 인한 카타르의 생산 중단 및 액화 Train 2기의 손상으로 인해 선박 인도 일정 조정 가능성이 제기
TotalEnergies와 파트너사들이 Mozambique LNG 프로젝트를 위해 계획한 17척의 LNG선 발주 진행 여부도 관심
☞ 272척, 연 40척이란 것은, 현재 확정된 터미널 기반 계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 Asyad Shipping,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1번째 LNG선
Oman의 Asyad Shipping 소속 137k-CBM급 LNG선 Sohar LNG(2001년 건조)가 공선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 중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행동 시작 이후, 해당 분쟁 수역을 통과하는 1번째 LNG선 사례로 기록
이란이 해로를 사실상 폐쇄하면서 약 15척의 LNG선이 한 달 이상 해협 서쪽에 고립된 상태였음
Kpler 데이터에 따르면 고립된 선박 중 12척은 카타르 화물을 적재한 상태이며, Sohar LNG를 포함한 3척만이 공선 상태
지난주에는 고립되었던 155k-CBM급 GasLog Skagen(2013년 건조)이 Bahrain의 FSU 기반 LNG 수입 터미널에서 화물을 하역하기도 함
이란은 걸프국가들의 수출에 필수적인 해당 요충지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음

▷ 유럽의 러시아 LNG 금지 조치에 따른 Yamal LNG 영향
유럽연합(EU)의 러시아 가스 및 LNG 수입 금지 조치가 2027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Yamal LNG의 아시아향 수출 재편이 불가피
북극 물류센터(CHNL)는 현재의 선단 규모로는 아시아로의 항로 변경 시 연간 120~130회 항해만 가능할 것으로 분석
이는 2024년 및 2025년 수출량의 절반 이하 수준. 아시아까지의 긴 항행 거리와 북극해 항로의 제한적인 운항 가능 기간이 주요 원인
수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아이스클래스 선박 확보, 환적 능력 확대 및 물류 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
2026년 1분기 Yamal LNG에서 출발한 70척의 화물 중 운항 중인 1척을 제외한 모든 물량이 유럽 터미널로 인도
1분기 유럽향 인도분 70척은 모두 Arc7급 선박에 의해 운송. 이 중 62척은 사베타에서 유럽 항구로 직행. 나머지 8척은 킬딘섬 환적 구역을 거쳐 유럽으로 향함
2025년 기준 Yamal LNG에서는 총 270척의 화물이 선적되었으며, 이 중 241회 항해를 14척의 Arc7 아이스클래스 LNG선이 담당함
Arc4급 선박과 비아이스클래스 선박은 계절적으로만 운항하며, 2025년 8월에서 11월 사이 Arc4급 6척이 15회를, 비아이스클래스 5척이 14회의 화물을 운송함

▶ 가스선/암모니아운반선

▲ 삼성중공업, JP Morgan으로부터 VLGC 2척 수주
JP Morgan이 삼성중공업에 2척의 VLGC 발주. 2029년 5월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113백만달러
선박의 구체적인 크기나 상세 사양은 공개되지 않음
최근 중동 갈등의 여파로 3월 VLGC 운임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신조 발주 관심이 높아짐
미국 LNG 프로젝트 승인에 따른 LPG 생산량 및 수출 증가 기대감이 반영
아시아 구매자들을 향한 Tonne-miles 증가가 섹터 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브로커들에 따르면 현재 VLGC 신조선가는 척당 약 110백만달러 선에서 형성되어 있음
2026년 1분기 기준, 이번 VLGC 2척을 제외하고도 총 12척(2.4십억달러)의 수주를 기록 중. 목표 13.9십억달러의 17% 달성
올해 수주는 LNG선 4척, VLEC 2척, 컨테이너선 2척, COT 4척
[03월5주] ▲ VLGC 신조 투자 관심 증가. HD현대는 KSS 해운 3척 + TMS 2척, 삼성중공업도 2곳 선주 협상
최근 시장의 혼조세 속에서도 VLGC 신조선에 대한 선주들의 관심이 눈에 띄게 상승 중
한국 조선소의 슬롯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며 여러 선사가 발주 후보로 거론
주요 프로젝트는
1) KSS해운: HD현대그룹 계열 조선소에 90k-CBM급 VLGC 3척에 대한 LoI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
2) TMS Cardiff Gas: 동일한 조선소와 2척의 LoI 체결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공식 답변은 거부
3) 삼성중공업: 추가로 2곳의 선주와 VLGC 건조 슬롯 확보를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
논의 중인 선박은 파나마 운하 통과가 가능한 90k-CBM급 파나마 선폭(Panamax Beam) 사양
현재 VLGC 신조선가는 척당 약 110백만달러 수준에서 형성
현재 VLGC 잔고는 106척으로 전 세계 선대의 27%를 초과하는 수준이라 브로커들 사이에서 과잉 공급 우려가 존재
2026년에는 올해 26척, 2027년 약 50척의 인도가 예정되어 있어 추가 발주가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8년 조기 인도 슬롯을 노린 현금 보유 선주들의 투자가 이어짐
중동 분쟁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이 오히려 VLGC 투기적 수요를 자극
미국 LNG 프로젝트 승인에 따른 LPG 생산량 증대와 아시아향 수출 확대로 인한 톤-마일 증가 기대감이 반영
이란 제재 해제 시 노후화된 Shadow Fleet이 퇴출되면서 신규 선박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 MOL 신임 Jotaro Tamura 사장 취임 및 주요 경영 방침. VLAC, LCO2 가속화
Jotaro Tamura 사장은 취임 첫날, 약 한 달간 지속된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힘
선원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컨테이너선·자동차 운반선·케미컬선: 최근 우호적인 시장 상황을 통해 수익에 크게 기여했으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
드라이벌크·탱커: 지정학적 상황에 따른 높은 시장 변동성이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 제공과 수익 기회 포착 사이의 균형이 필요
LNG선·에탄 운반선: 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 선점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
신사업: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 영역을 수익화하고 포트폴리오 전반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장기적 과제를 수행 중임
기후 변화 및 탈탄소화선박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CO2 배출을 줄이는 것을 즉각적인 우선순위로 둠
암모니아 및 액체 CO2 운송 분야의 사업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
MOL의 새로운 기업 미션과 비전 수립에 깊이 관여해 온 인물로서 책임감을 강조함
정직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팀워크와 전 조직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을 당부
신규 경영 계획의 3대 핵심 테마로 역량 강화, 자본 배분, 경영 기반 공고화를 제시

▶ 컨테이너선

▲ ONE, 22척에서 6척을 발주 축소. HD현대중공업 수주
Ocean Network Express(ONE)가 당초 계획했던 22척 규모의 신조 프로그램을 6척으로 크게 축소
지난 2월에는 13k-TEU 6척(옵션 6척)과 15k-TEU 6척(옵션 4척) 등 총 22척을 검토했으나 보수적인 결정으로 선회
HD현대중공업에 2029년 하반기 인도물로, 15k-TEU LNG D/F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 기존 용선 중 일부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
발주 축소의 배경은 1)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갈등과 2) 2025 회계연도 3분기의 저조한 실적이 주요 원인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4.85십억달러에서 4.07십억달러로 감소했으며, 88백만달러의 손실을 기록. 수요 저하보다는 운임 하락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
또는 3) ONE이 48.9%의 지분을 보유한 Seaspan Corp와의 관계 때문에 선대 확장 전략을 재검토했을 것으로 추정
지난 1월부터 한국의 HD현대, 한화오션, 중국의 Yangzijiang Shipbuilding, Shanghai Waigaoqiao Shipbuilding, 일본의 Nihon Shipyard 등이 입찰에 참여
신조선가는 13k-TEU급이 160백만달러~180백만달러, 15k-TEU급은 최대 200백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되어 총 예산이 4.2십억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보임
신조 계획은 축소했으나 태국 Laem Chabang 터미널 지분 30% 인수 및 한국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 주주 참여 등 터미널 사업은 확장 중
현재 약 273척의 컨테이너선을 운영 중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용선
현재 잔고는 48척으로, HD현대중공업의 16k-TEU LNG D/F 8척, Yangzijiang 및 Jiangnan Shipyard의 13k-TEU Methanol D/F 28척 등

▶ 탱커

▲ HD현대중공업, Hafnia로부터 PC선 8척 수주

Mikael Skov가 이끄는 Hafnia는 HD현대중공업과 50k-DWT PC선 8척 건조 계약을 체결
2028년 3분기에서 2029년 2분기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전자공시 기준 50.7백만달러로 양호
울산의 HD현대미포와 HD현대베트남조선에서 반반 건조하는 것으로 전함
Hafnia는 당초 중국 Hengli Heavy Industry와 잠정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적기 인도를 보장받기 위해 한국 조선소로 선회
Skov CEO는 이번 발주가 연료 효율성이 입증된 설계를 바탕으로 하며, 선대 현대화 및 탈탄소화 경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Hafnia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최대 PC선 선주사로, 경쟁사인 Torm 인수를 통한 확장을 모색 중
Torm과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약 300척의 선단을 보유한 50억달러 규모의 거대 운영사가 탄생

▲ 대한조선, 91.5백만달러의 역사상 최고가로 수에즈막스 탱커 수주

대한조선이 157k-DWT suezmax 탱커 2척을 수주하며 2026년 1분기 만에 연간 수주 목표 달성
2029년 9월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90백만달러(전자공시 91.5백만달러)로 회사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
발주처는 오세아니아 소재 선주로 알려졌으며, 해당 선주는 대한조선의 장기 파트너로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
이번 계약을 포함하여 2026년 1~3월 동안 총 12척을 수주했으며, 이로써 연간 수주 목표치를 조기 달성
현재 대한조선의 전체 잔고는 총 35척으로 늘어났으며, 향후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바탕으로 생산 효율성 제고와 수익성 극대화에 집중할 계획
회사는 향후 차세대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신시장 확대에 역량을 투입할 예정

▲ 3월 초 대한조선 수에즈막스 탱커 수주는, Laskaridis Shipping의 3호선 옵션행사. 4호선도 곧

Laskaridis Shipping을 이끄는 Panos Laskaridis는 대한조선에 발주했던 첫 suezmax 신조선에 대해 옵션을 행사
동선주는 3월초에 157k-DWT 탱커 3호선 옵션을 행사했으며,
4월 중순 기한의 4호선에 대한 옵션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3번째 선박의 신조선가는 약 89백만달러로 추정. 이는 지난 1월 발주한 1, 2호선의 척당 85~86백만달러보다 높은 가격
해당 선박은 인도 시점이 2029년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스크러버가 장착된 컨벤셔널 연료 추진 방식
이번 수주로 신설 브랜드인 Lavinia Tankers는 인도 완료 시 최대 4척의 suezmax 선대를 보유하게 됨

▽ Hafnia, 최대 480백만달러 규모 PC선 발주 관련 요약

화학 및 PC선 전문 선사인 Hafnia가 중국 Hengli Heavy Industry와 8~10척의 MR PC선 신조 예비 계약을 체결
2028년 인도로 예상되며, 50k-DWT급 신조선가는 46백만달러~47백만달러 수준으로 전함
이번 수주는 Hengli Heavy Industry의 첫 번째 MR PC선 수주로, 글로벌 조선 시장 내 외연 확장을 의미
Hafnia는 약 2주 전 한국 HD현대중공업에도 MR PC선 4척을 발주. 컨벤셔널 추진이며 신조선가는 50백만달러를 소폭 하회
이 중 2척은 HD현대미포에서, 나머지 2척은 HD현대베트남조선에서 건조되어 2028년 말 인도될 예정
Hafnia는 현재 180척 이상의 탱커를 보유·운영 중이며, 올해 초 9척의 탱커 매각 이후 선대 재건 프로그램을 가동 중
중국 Hengli Heavy Industry는 세계 최대 조선사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약 280척의 잔고를 보유 중
특히 Hengli Heavy Industry는 약 80척의 VLCC 잔고를 보유하여 이 분야 세계 1위를 기록 중
Hengli Heavy Industry는 길이 1.2km, 너비 146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드라이독을 건설하여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 중

▽ 팬오션, 중국에 VLCC 신조 발주

팬오션은 중국 Qingdao Beihai Heavy Industries에 319k-DWT VLCC 1척을 발주
2029년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122백만달러. Ammonia-ready 사양
팬오션은 이미 HD현대삼호에 2025년 발주한 300k-DWT급 컨벤셔널 VLCC 2척(척당 약 127백만달러)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 6월과 8월에 각각 인도받을 예정
지난 2월에는 SK해운으로부터 중고 VLCC 10척을 676백만달러에 매입하여 대형 탱커 부문 지배력을 대폭 강화한 바 있음
팬오션은 동일한 중국 조선소에 210k-DWT급 newcastlemax 벌크선 확정 2척+옵션 2척을 척당 평균 77백만달러에 발주한 바 있음
해당 벌크선들은 D/F(LNG 또는 암모니아) 추진이 가능하며, 2030년 하반기에서 2031년 1분기 사이 인도될 예정
HD현대베트남조선에도 50k-DWT급 PC선 5척을 건조 중이며, 올해부터 2027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수령
Oshima Shipbuilding에서는 64k-DWT급 벌크선 4척을 건조 중이며, 2028년까지 모두 인도
팬오션은 현재 VLOC, LNG선, PC선, 벌크선 등 총 115척의 함대를 운영 중이며, 한국과 일본 등에서 총 12척의 신조 잔고를 관리하고 있음

▽ Shell, 노후 선단 교체를 위한 최대 20척의 MR 탱커 신조 확보 추진

이번 신조 추진은 과거 계약된 MR 탱커들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수요 때문
정기 용선 선단을 갱신하기 위해 중국 조선소들과 대규모 MR 탱커 신조 발주를 협의 중
Shell은 현재 이용 가능한 선석과 설계를 검토하며, 컨벤셔널 연료 방식의 MR 탱커 최대 20척에 대한 슬롯을 확보하고자 함
협의 대상에는 Hengli Heavy Industry를 포함한 여러 중국 조선소가 거론
Shell이 신조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나, 향후 선주사를 참여시켜 선박을 계약하게 하고 이를 다시 정기 용선으로 확정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관측
Shell은 과거에도 대규모 탱커 확보 시 선석을 먼저 확보한 뒤 선주를 지정하고 이익 공유(Profit-sharing) 기반의 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전략을 사용해 왔음
현재 기존 MR 탱커의 용선료는 약 60,000달러/일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이에 비해 신조선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황
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MR 탱커 신조선가는 약 50백만달러. 5년 정기 용선료는 평균 약 22,500달러/일 수준
2013년 'Project Silver'를 통해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된 MR 탱커 50척을 용선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중국 New Times Shipbuilding에서 건조된 10척의 신조선에 대해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3년 전에는 Guangzhou Shipyard International에 스크러버 50k-DWT PC선 10척을 척당 약 48백만달러에 발주. 2028~2029년 인도 예정
☞ Project Silver 오랫만에 듣습니다. 그때 참 고생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탱커 중고선 시장 평가액보다 비싸게 S&P 중

그리스 선주 Spring Marine이 이탈리아 d'Amico International Shipping(DIS) 소유의 MR PC선 1척을 매입
매입 대상 선박은 2012년 한국에서 건조된 51.7k-DWT
매입가는 27.6백만달러로, VesselsValue 제시 가치인 26.45백만달러보다 높은 가격에 성사
이는 현재의 매우 강한 운임 시장과 PC선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된 결과
선주별 선대 현황
싱가포르 Paragon Mobility 소유의 2007년 건조 77k-DWT급 panamax/LR1 탱커도 신원 미상의 매수자에게 20백만달러에 매각
해당 선박의 VesselsValue 평가액은 17백만달러 수준

△ Saverys 가문,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Suezmax 탱커 추가 매각하고, 신조투자할 듯

벨기에의 Saverys 가문이 운영하는 CMB.Tech와 개인 함대에서 노후 Suezmax 탱커 2척을 동일한 매수자에게 약 95백만달러에 일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짐
매각 대상 선박은 CMB.Tech 소유의 149.9k-DWT Sienna호(2007년 건조)와 가문 개인 함대 소유의 158.8k-DWT Cap Felix호(2008년 건조)
VesselsValue 평가에 따르면 Sienna호의 가치는 약 46백만달러, Cap Felix호는 약 49백만달러
이번 매각은 탱커 시장의 기록적인 자산 가치 상승을 활용하여 효율성이 낮은 선박을 정리하려는 전략의 일환
1년 전 Sienna호의 가치는 33.5백만달러, Cap Felix호는 36백만달러 미만이었으나 최근 가치가 크게 상승
CMB.Tech는 선단 최적화 및 탈탄소화 전략에 따라 구형 선박 매각 대금을 에코 신조선 건조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음
CMB.Tech는 2025년 선박 매각을 통해 1.9억달러의 자본 이득을 기록. 2026년 1분기에만 이를 상회하는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함
최근 한국의 Sinokor Maritime에 VLCC 8척을 총 거의 7억달러에 매각하는 등 대규모 자산 정리를 진행 중
CMB.Tech는 이러한 매각을 통해 2026 회계연도 1분기에 총 2억 6,930만달러의 자본 이득을 거둘 것으로 보임
회사는 올해 총 39척의 신조선을 인도받을 예정

▶ 오프쇼어/디펜스

▲ 한화, 미 해군 차세대 보급함(NGLS) 개념설계 사업 수주 및 미국 조선업 부흥 주도

한화는 미 해군의 차세대 보급함(T-AOL, 구 NGLS)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 설계 작업을 지원하는 첫 번째 미 해군 하청 계약을 체결
이번 사업은 한화디펜스 USA와 한화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가 Vard Marine US와 협력하여, 시장 조사, 개념 설계 개발, 건조 비용 및 방식 평가를 수행
미 해군의 차세대 보급함은 상용 기술을 활용하여 해상 급유, 재보급 및 재무장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옵션에 따라 향후 상세 설계 및 추가 연구로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음
이번 수주는 미국 내 조선업 기반 위축으로 인한 국가 안보 우려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미국 정부는 분쟁 상황에 대비해 해외 조선 역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노력 중임
한화의 미국 함정 및 상선 시장 진출의 중요한 이정표가 됨
현재 미국 조선소는 노동력 부족과 고비용 문제로 아시아 조선소 대비 건조 기간은 2배, 비용은 최대 5배까지 발생하는 실정
한화는 2024년 12월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이후 인력 및 설비 확충을 위해 2억달러 이상을 투자
한화필리조선소는 현재 연간 1~1.5척의 선박을 인도하고 있으나, 자동화, 로봇 공학 및 새로운 교육 시스템 도입을 통해 생산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
한화는 조선소 인력을 7,000명에서 10,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연간 최대 20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 삼성중공업, 미 해군 차세대 보급함(NGLS) 설계 참여

삼성중공업, General Dynamics NASSCO, DSEC와 함께 미국 해군 차세대 보급함(NGLS, Next-Generation Logistics Ship, NGLS) 프로그램의 개념 설계 지원을 위한 3자 MOA 체결
그리고, 미국 해군성으로부터 차세대 군수지원함의 개념설계(Concept Design)를 수주
이는 미 해군이 추진하는 대규모 함정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성중공업의 기술력이 미국 국방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
이번 협력은 2027년 3월까지 이어지며, 삼성중공업이 미국 해군 프로그램 참여를 공식화한 1번째 사례
NGLS 프로그램은 분산 해상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소형 급유함 및 보급함 13척 이상을 건조하는 대규모 사업
삼성중공업은 대덕연구센터의 테스트 역량을 활용해 고효율 선형 설계, 기동성, 안정성 및 보급 성능 최적화에 집중할 계획
설계 외에도 미국 현지 조선소 건조 지원 및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진출을 위해 MSRA 자격 취득 준비 중
자동화, 로봇 공학 및 친환경 조선 솔루션 협력을 위해 San Diego State University와 기술 파트너십 추진
미국 내 조선 기자재 클러스터 및 교육 센터 설립, 자동화 생산 기술 도입을 통한 현지 생산 역량 지원 검토
한화오션은 이미 해당 프로그램의 하도급 계약을 확보하고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하며 선제적으로 대응 중
HD현대중공업은 이번 NGLS 개념 설계 입찰에서 탈락하며 한국 조선업계 내 논쟁 확산
HD현대중공업의 탈락 원인으로 보조함이 아닌 전투함 중심의 파트너(Huntington Ingalls) 선정 미스매치와 외형적 규모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지적
한화오션(VARD와 협력) 및 삼성중공업(General Dynamics NASSCO와 협력)은 전문성을 갖춘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경쟁 우위 확보
미국 내 건조 역량 부족과 인도 지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한국 조선사들의 미국 시장 타겟팅이 가속화되는 추세임

▲ Trump 예산안, 미국 선박 발주를 역사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조선소 호황 예고

Trump 대통령은 1945년 이후 최대 규모인 34척의 해군 선박 발주가 포함된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금요일 발표할 예정. 미국 내 조선 산업에 전례 없는 호황이 예상
미국 해군의 함대 규모를 대폭 확장하기 위해 군함 및 보조함 발주를 역사적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
Jones Act를 준수하는 상업용 선박의 자국 내 건조를 장려하기 위한 강력한 금융 지원 및 인센티브 포함
급증하는 수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미국 내 유휴 조선소 재가동 및 기존 시설의 현대화 작업에 대규모 예산 투입 예정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설계 및 자동화 건조 기술 도입을 가속화할 방침
미국 자체 생산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조선사들과의 기술 협력 및 유지·보수·정비(MRO) 파트너십 강화가 핵심 전략으로 부상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한국 주요 조선사들이 미국 시장 진출 및 현지 조선소와의 협력을 통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
최근 General Dynamics NASSCO-DSEC-삼성중공업 간 체결된 MOA와 같이 설계 및 생산 자동화 기술 전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선박 건조에 필요한 강재 및 주요 기자재의 자국 내 조달 비중을 높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지향
조선업 부흥을 통해 숙련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수만 개의 고용 창출 효과 노림

▽ Shell, 호주 LNG 횡재세 도입 경고 및 에너지 안보 우려 요약

영국 메이저 기업인 Shell은 호주 정부의 가스 수출업체 대상 횡재세(Windfall Tax) 도입 검토에 대해 강력히 경고
이러한 조치가 중동 분쟁으로 글로벌 공급이 불안정한 시기에 투자를 저해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
호주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스 수출업체의 초과 이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재무부에 검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호주는 연간 81.8MTPA의 액화 능력을 보유한 세계 2위의 LNG 수출국임
호주산 LNG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
현재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해당 경로를 통한 LNG 수출이 급감하고 가격이 크게 상승한 상태
Shell Australia의 Cecile Wake 회장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단기적 처방'이나 '포퓰리즘적 수사'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확실성이 중요하다고 강조
최근 석유자원대납세(PRRT)를 개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세제 변경이나 25%의 LNG 수출 부과금을 도입하는 것은 지역 무역 파트너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비판
새로운 과세 도입은 실질 세율을 높여 프로젝트 가치를 훼손하고, 호주의 미래 성장 기회를 글로벌 시장에서 비경제적이고 경쟁력 없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
이는 지난주 호주 총리가 싱가포르 정부와 함께 에너지 안보 강화 및 LNG의 원활한 유통을 약속한 성명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임

▷ 한화오션, ExxonMobil 출신 James Sagar를 한화해운 CEO로 선임

한화오션은 최근 사임한 Ryan Lynch의 뒤를 이어
미국 해상 섹터 전문가인 James Sagar를 한화해운(Hanwha Shipping)의 CEO로 선정
그는 또한 해양 기술 및 탈탄소화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는 신설 조직인 Hanwha Maritime Solutions의 사장직을 겸임
James Sagar는 해상 분야에서 30년의 경력을 쌓은 베테랑으로,
지난해 Hanwha Philly Shipyard에 발주한 LNG선 2척과 PC선 10척을 기반으로 미국 및 동맹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원할 계획
James Sagar는 한화오션 합류 전 미국 석유 메이저 ExxonMobil과 그 합작 투자사에서 경력의 대부분을 보냈으며,
최근에는 공급망 프로젝트 실행 담당 및 SeaRiver Maritime의 부사장 등을 역임한바 있음

▶ 기타

△ CMB.Tech, 선박 매각을 통한 수익 창출 요약

CMB.Tech는 2025년 선박 매각을 통해 192백만달러의 자본 이득을 기록
2025년 한 해 동안 VLCC 5척, suezmax 탱커 2척, capesize 벌크선 2척, panamax 2척, 인원 이송선(CTV) 1척을 매각
이러한 매각 이익에 힘입어 2025년 매출 1.66십억달러, 순이익 139.1백만달러를 달성
2026년 1분기에만 약 269.3백만달러의 자본 이득을 기록하며 지난해 전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올해 초부터 한국 Sinokor Maritime에 VLCC 8척을 견조한 가격에 매각
VesselsValue 자료에 따르면 시노코에 매각한 VLCC 8척의 총 대금은 698백만달러
추가로 타 선주에게 capesize 벌크선 2척을 56.5백만달러에 매각
Alexander Saverys CEO는 시장의 강세를 활용해 노후 선박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고,
매각 대금은 부채 상환, 재무제표 강화 및 배당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Golden Ocean 브릿지 론을 합병 후 6개월 이내에 상환하며 대규모 거래를 신속하고 규율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
2026년 한 해 동안 총 39척의 신조선을 인도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진행된 선박 매각은 전체 선대 용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미 VLCC 2척과 스테인리스 스틸 케미컬선 1척을 인도받았으며,
향후 capesize 벌크선 8척, 6,014-TEU 컨테이너선 3척, suezmax 탱커 3척 등이 추가로 인도될 예정

△ 튀르키예-이란,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통과를 위한 협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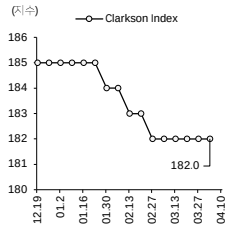
튀르키예 정부는 중동 걸프 지역에 고립된 선박 11척의 통행을 위해 이란 당국과 협의 중
현재 호르무즈 해협 서쪽에 체류 중인 튀르키예 소유 선박은 총 14척이며, 이 중 3척은 현지 작전을 위해 체류 중이고 나머지 11척이 출항을 희망
튀르키예 당국은 고립된 선박들의 승무원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상황을 모니터링
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은 에너지, 운송 및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보복 공격이 지역적 갈등으로 번질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
이란은 최근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 등 '우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례별로 안전 통행을 허용하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이란과의 고위급 외교 접촉을 통해 탱커 통행권을 확보했으며, 스페인은 EU 국가 중 1번째로 통행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베트남 국영 PetroVietnam은 조만간 이란의 통행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쿠웨이트에서 선적할 아시아향 원유 운송을 위해 선주들과 접촉 중

▷ 미국 국무부, 북한 제재 위반 선박 제보에 거액 포상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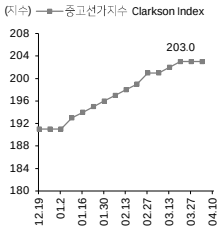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제재 대상 물품 수출입을 돕는 선박에 대한 정보 제공 시 최대 500만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이번 포상금 프로그램은 미국 '정의를 위한 보상(Rewards for Justic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광고 중
북한은 국제 제재를 위반하여 해상에서 석유, 석탄 및 기타 상품의 불법 선박 간 환적(Ship-to-Ship transfer)을 수행하기 위해 그림자 함대를 운영
이러한 불법 거래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
관련 정보 제공자는 보상금 외에도 거주지 이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북한 선박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자동식별장치(AIS) 차단, 서류 조작, 선박명 변경 등의 기만 행위를 활용
사례로 2025년 10월 동중국해에서 북한 국적선이 AIS 발신을 중단하고 Hui Xin호 및 미확인 유조선과 만나 석유를 환적한 뒤 북한으로 돌아간 정황이 포착
Hui Xin호는 지난해 12월에도 야간을 틈타 또 다른 북한 유조선에 석유 제품을 불법 환적하는 모습이 목격
현재 해운 데이터베이스에는 중국 개인 소유의 소형 PC선 2척이 Hui Xin이라는 이름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
Donald Trump 대통령은 재임 1기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친밀한 관계를 보였으나, 2기 임기 중에는 아직 관계 재개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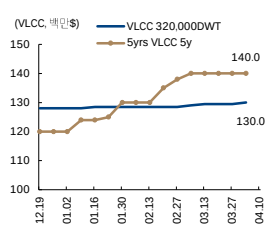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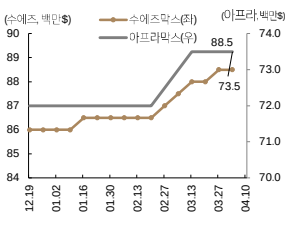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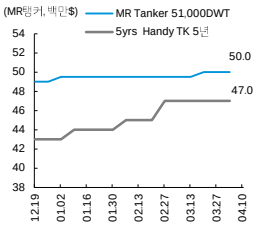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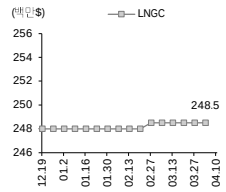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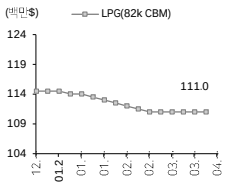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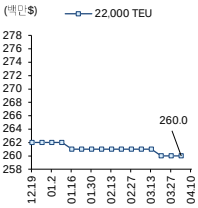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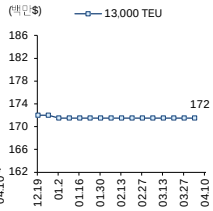
가스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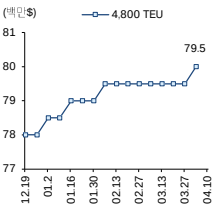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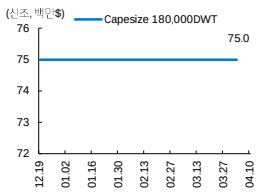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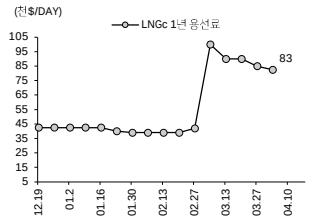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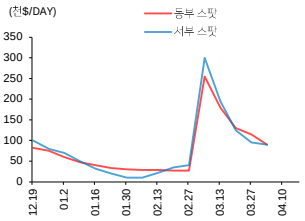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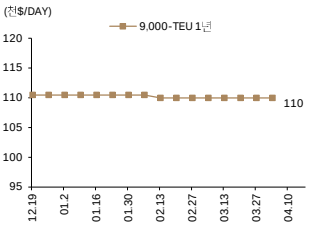
LNG선 용선료(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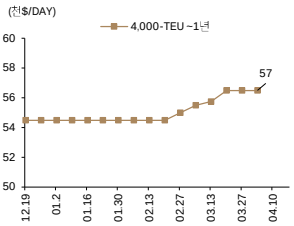


LNG선 SPOT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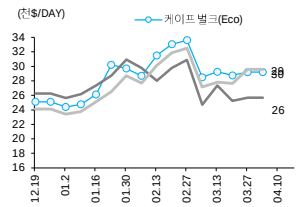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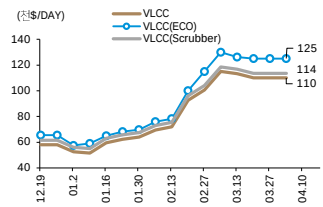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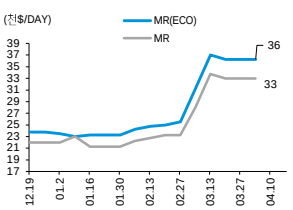
벌크



탱커 - VLCC



탱커 - MR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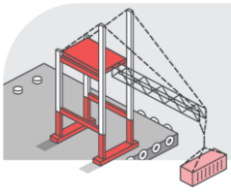
Consensus 추이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2026 EPS(원)									Change(%)		VALUATION	
그룹	종목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6.03.07	26.03.14	26.03.21	26.03.28	26.04.03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26 PER	종가
조선	HD한국조선해양	45,093	48,369	47,628	49,234	49,052	49,052	48,632	48,632	48,142	-2%	-2%	7.8	375,000
	HD현대중공업	22,699	24,108	23,193	26,236	25,772	25,638	25,638	25,638	25,638	-2%	-1%	18.7	479,500
	삼성중공업	1,162	1,328	1,332	1,395	1,409	1,409	1,409	1,409	1,410	1%	0%	19.8	27,900
	한화오션	4,343	4,491	4,470	4,451	4,439	4,414	4,414	4,414	4,414	-1%	-1%	29.0	128,000
엔진	한화엔진	1,765	1,758	1,720	1,881	2,048	2,048	2,076	2,076	2,103	12%	3%	21.7	45,700
	STX엔진	1,350	1,350	1,350	1,350	1,350	2,147	2,147	2,147	2,070	53%	53%	17.5	36,200
	HD현대마린엔진	2,620	3,061	3,061	3,275	3,540	3,540	3,535	3,535	3,535	8%	0%	21.4	75,800
건설기계	HD건설기계	9,176	10,395	10,395	8,098	8,972	8,972	8,972	8,972	8,972	11%	0%	16.3	146,100
	두산밥캣	5,833	5,815	5,779	5,620	5,343	5,343	5,363	5,363	5,363	-5%	0%	11.3	60,600
발전/중전기	두산에너빌리티	798	663	595	628	607	579	553	553	541	-14%	-11%	178.6	96,600
	HD현대일렉트릭	23,855	26,026	26,268	27,062	27,201	27,201	27,203	27,203	27,058	0%	-1%	32.6	883,000
	효성중공업	59,647	76,206	76,206	74,953	83,530	83,530	83,530	83,530	83,472	11%	0%	30.7	2,560,000
	LS ELECTRIC	13,289	13,637	14,115	15,274	15,113	15,113	15,139	15,139	15,088	-1%	0%	51.0	769,000
방산/기타	한국항공우주	3,914	3,818	3,766	3,871	3,801	3,826	3,826	3,814	3,814	-1%	0%	47.9	182,6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8,479	46,686	46,282	46,463	45,694	45,694	45,694	45,694	45,694	-2%	0%	31.7	1,449,000
	LIG넥스원	18,391	18,063	17,891	17,879	16,781	16,781	16,781	16,781	16,781	-6%	0%	51.2	860,000
	한화시스템	1,548	1,541	1,541	1,520	1,644	1,567	1,567	1,567	1,510	-1%	-8%	89.7	135,400
	현대로템	9,695	9,901	9,677	9,496	8,975	8,960	8,960	8,960	8,960	-6%	0%	23.4	210,000
	현대엘리베이터	9,311	9,311	4,720	4,720	4,720	4,720	4,720	4,720	4,720	0%	0%	18.4	86,900
피팅	성광벤드	2,088	2,308	2,308	1,800	1,800	1,657	1,600	1,600	1,600	-11%	-11%	24.7	39,600
	태광	2,048	2,025	2,068	2,166	2,214	2,214	2,108	2,108	2,108	-3%	-5%	19.6	41,350
	하이록코리아	4,555	4,555	4,393	4,393	4,393	4,393	4,393	4,393	4,393	0%	0%	8.7	38,050

		2026 BPS(원)									ROE		VALUATION
그룹	종목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6.03.07	26.03.14	26.03.21	26.03.28	26.04.03	2026	2027	2026 PBR
조선	HD한국조선해양	213,337	220,650	219,809	222,893	221,904	221,372	220,805	220,805	220,633	22%	24%	1.7
	HD현대중공업	93,045	95,962	104,136	108,326	104,051	103,813	103,813	103,961	103,961	25%	27%	4.6
	삼성중공업	7,469	7,483	7,490	7,610	7,560	7,560	7,560	7,560	7,560	19%	22%	3.7
	한화오션	23,343	23,411	23,354	23,380	24,053	24,069	24,069	24,069	24,069	18%	21%	5.3
엔진	한화엔진	6,317	7,372	7,372	7,372	7,372	7,372	7,372	7,372	7,372	29%	35%	6.2
	STX엔진	10,191	10,191	10,191	10,191	10,191	10,748	10,748	10,748	10,669	19%	19%	3.4
	HD현대마린엔진	13,700	14,562	14,562	15,414	17,381	17,381	17,467	17,467	17,467	20%	24%	4.3
건설기계	HD건설기계	111,930	113,305	113,305	96,874	94,613	94,613	93,773	93,773	93,773	10%	12%	1.6
	두산밥캣	80,046	78,639	79,427	78,925	78,705	78,705	78,052	78,052	78,052	7%	8%	0.8
발전/중전기	두산에너빌리티	13,400	12,879	12,697	12,802	12,681	12,650	12,632	12,632	12,705	4%	7%	7.6
	HD현대일렉트릭	73,067	75,244	75,493	77,376	77,277	77,277	77,348	77,348	76,893	35%	37%	11.5
	효성중공업	295,769	320,161	320,161	316,950	329,109	329,109	329,429	329,429	328,670	25%	30%	7.8
	LS ELECTRIC	77,996	78,322	78,797	79,914	79,927	79,927	80,077	80,077	80,279	19%	23%	9.6
방산/기타	한국항공우주	22,908	22,655	22,610	22,640	22,294	22,298	22,298	22,273	22,273	17%	22%	8.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20,130	215,652	214,311	219,841	232,378	232,901	232,901	232,901	232,901	20%	22%	6.2
	LIG넥스원	81,976	75,712	75,129	81,533	78,143	78,143	78,143	78,083	78,083	21%	25%	11.0
	한화시스템	17,963	18,781	18,781	18,909	15,253	15,180	15,180	15,180	15,180	10%	14%	8.9
	현대로템	36,008	36,906	36,569	36,564	35,890	35,753	35,753	35,753	35,753	25%	30%	5.9
	현대엘리베이터	42,842	42,842	30,487	30,487	30,487	30,487	30,487	30,487	30,487	15%	26%	2.9
피팅	성광벤드	23,070	23,255	23,255	22,776	22,776	22,569	22,658	22,038	22,038	7%	8%	1.8
	태광	24,812	24,776	24,680	25,824	26,455	26,455	26,219	26,219	26,219	8%	9%	1.6
	하이록코리아	43,975	43,975	41,221	41,221	41,221	41,221	41,221	41,221	41,221	11%	11%	0.9

출처: Dataguide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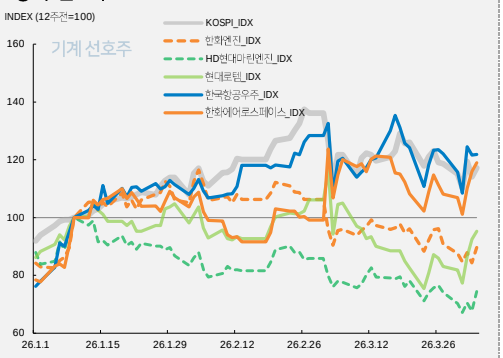
2026.04.05 [816호]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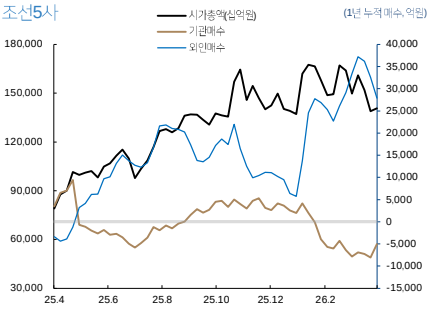
▶당사 선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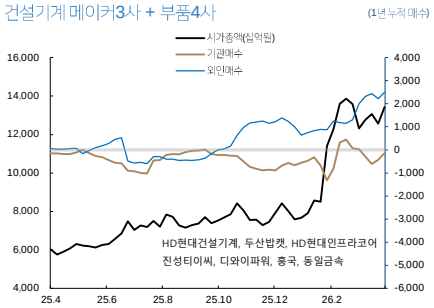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기관, 외인 누적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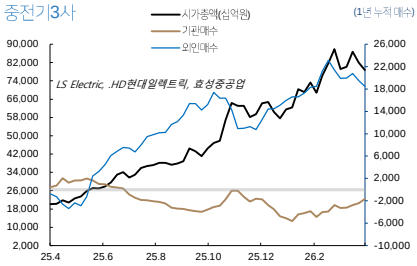
조선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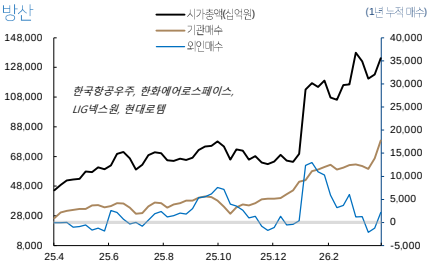
건설기계 메이커3사 + 부품4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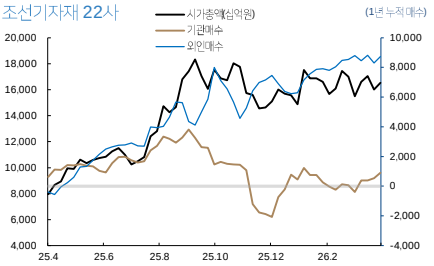
중전기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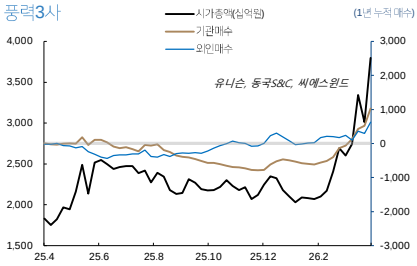
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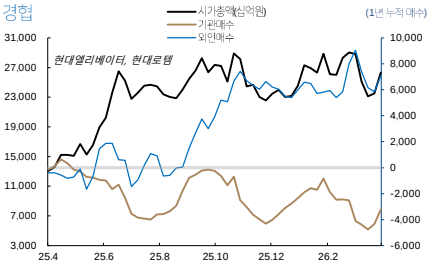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2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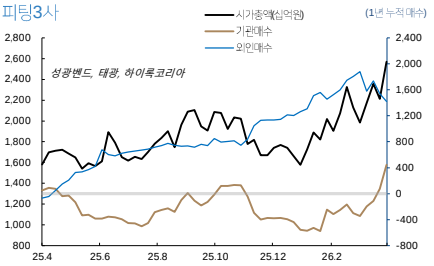
풍력3사



경협



피팅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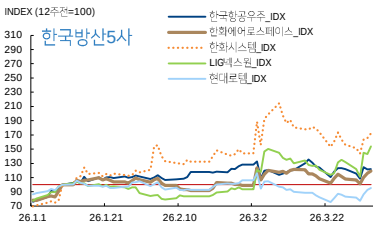
다올 기계 ChartBook

2026.04.05 [8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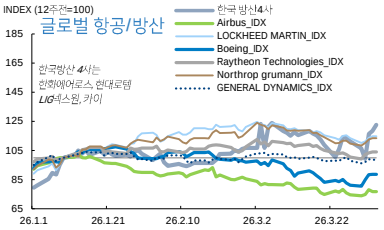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방위산업과 항공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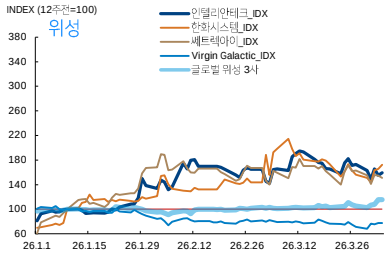
▶ 한국의 방산 3사+한화시스템+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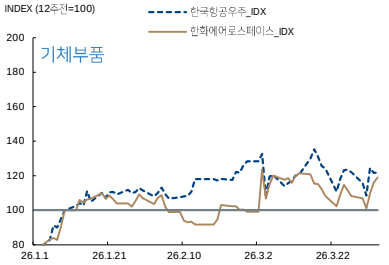
▶ 글로벌 방산/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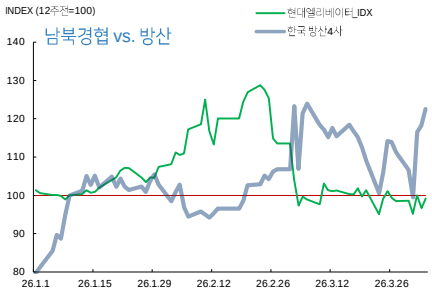
▶ 한국과 해외 위성 피어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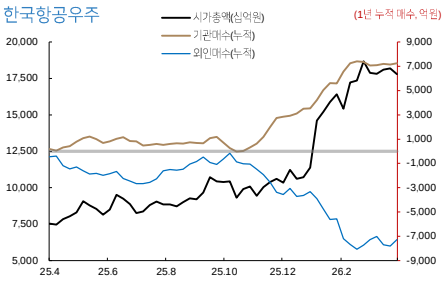
▶ 항공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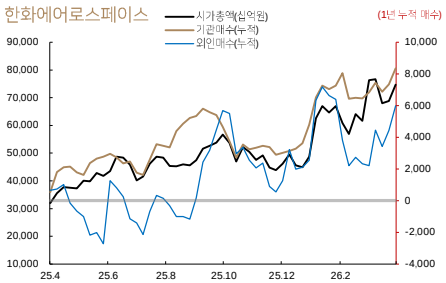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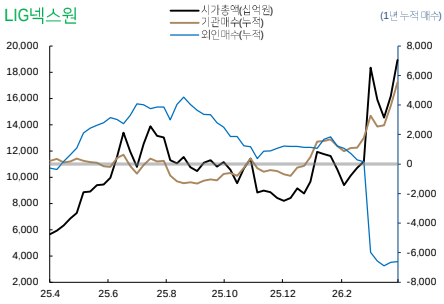
▶ 방산 vs. 경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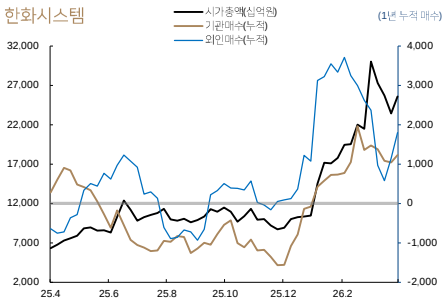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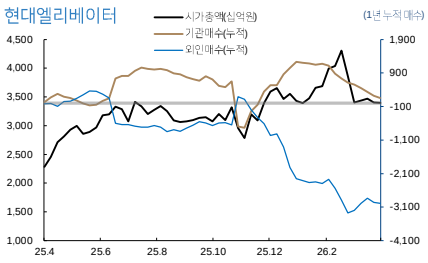
방위산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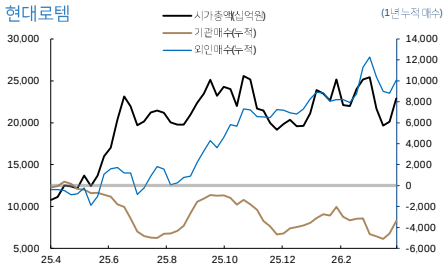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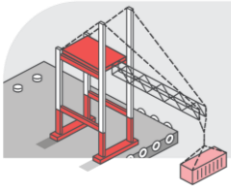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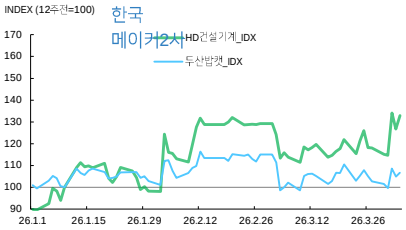
다올 기계 ChartBook

2026.04.05 [8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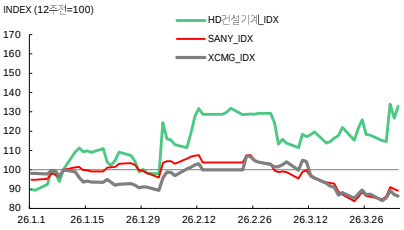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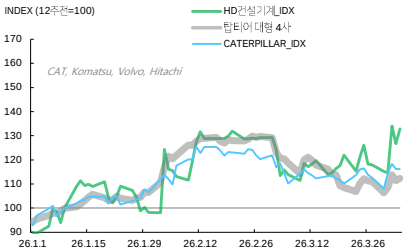
한국의 메이커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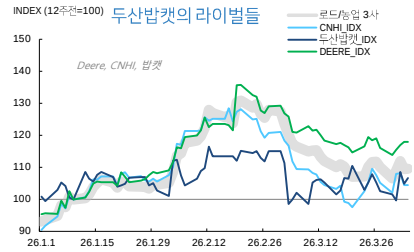
중국 건설장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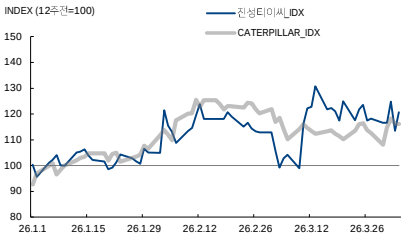
대형: 두산, 현건기, C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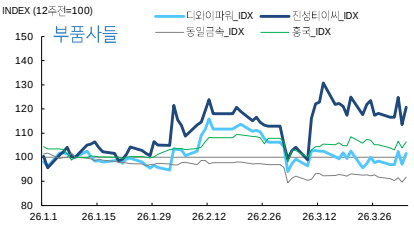


미니 소형에서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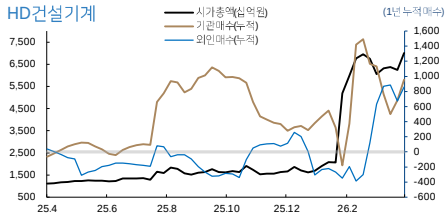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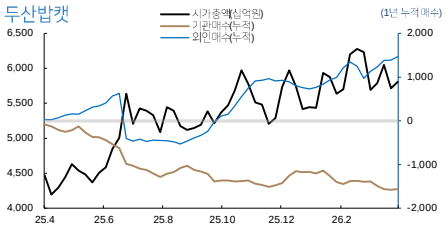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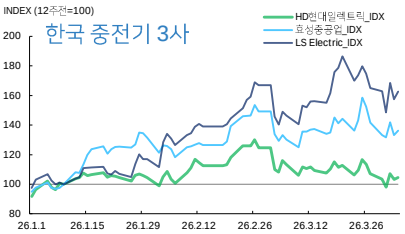
건설기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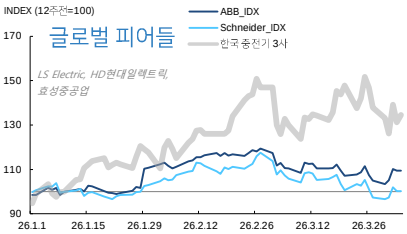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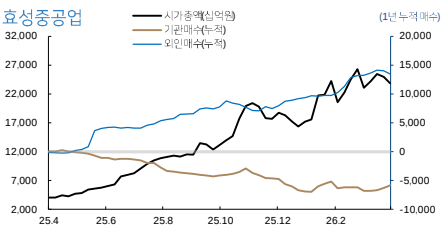
중전기

한국 중전기 3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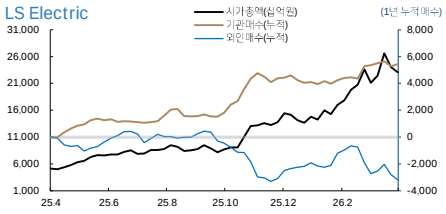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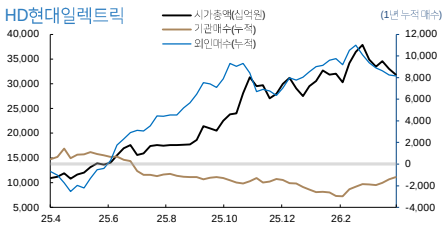
글로벌 피어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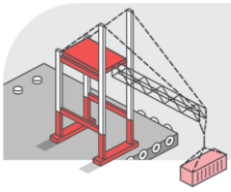




중전기 수급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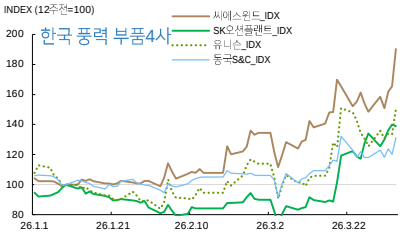
2026.04.05 [816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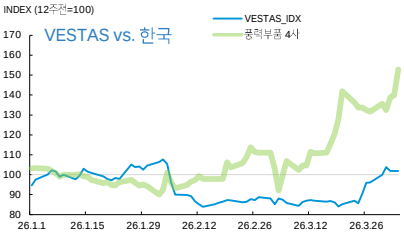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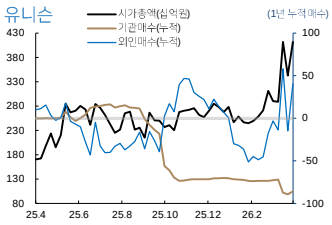
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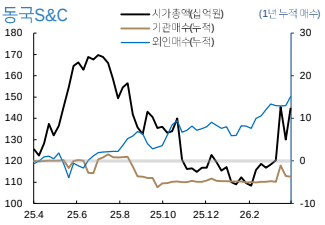
▶ 한국 풍력 부품4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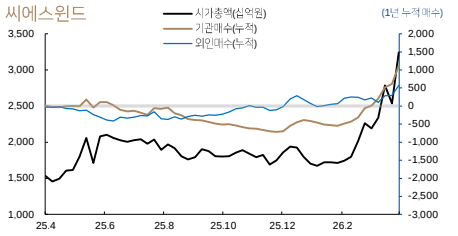
▶ 한국 풍력 vs. VEST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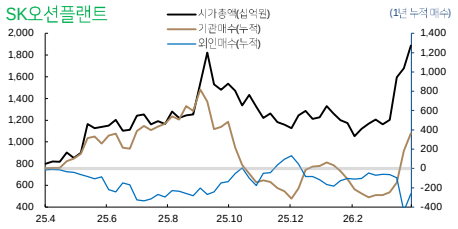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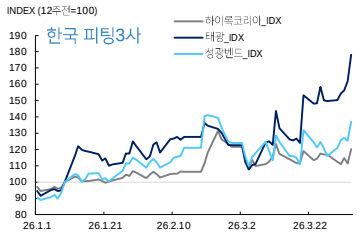
풍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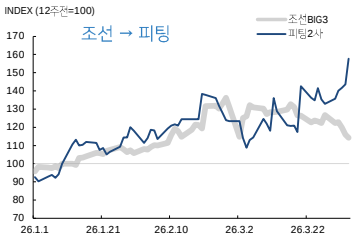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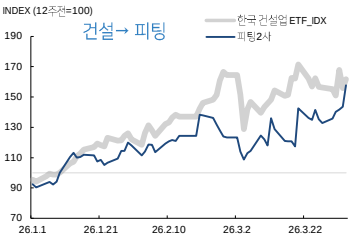
▶피팅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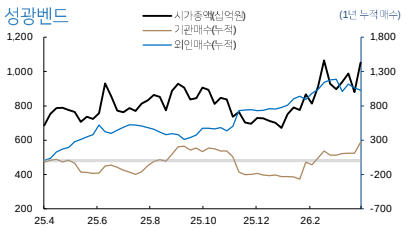
▶ 조선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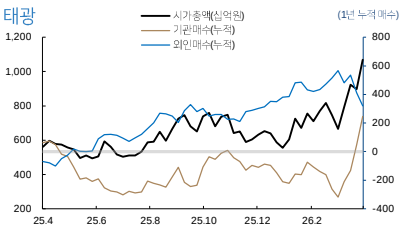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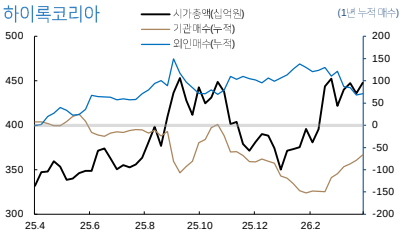
▶ 건설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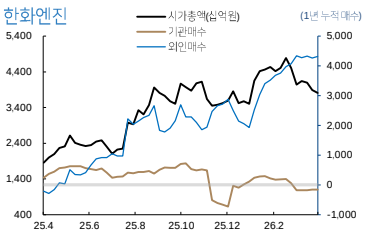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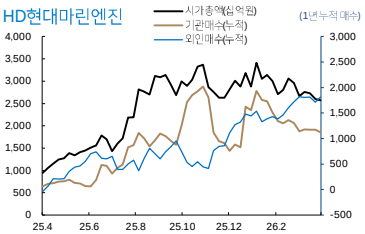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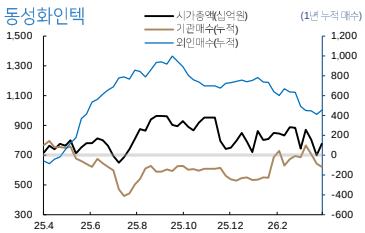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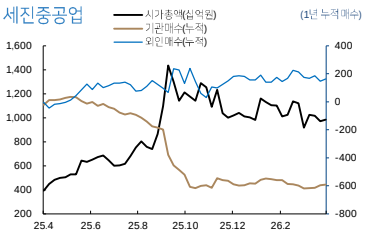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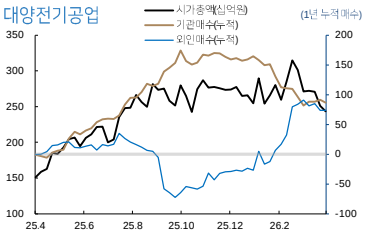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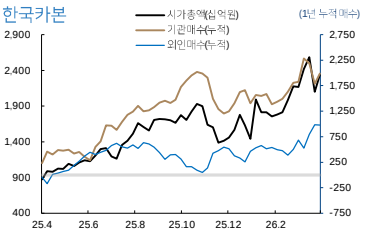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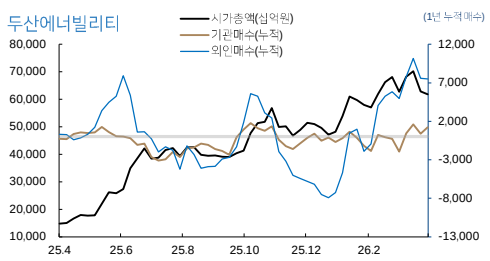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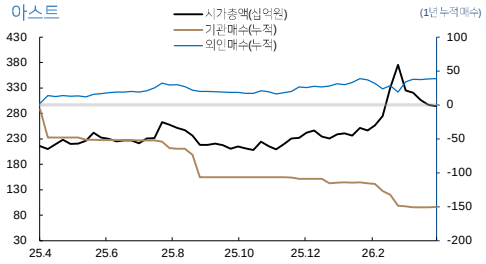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기타 기계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당사의 투자의견 중 BUY는 "매수", HOLD는 "중립", SELL는 "매도"에 해당.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

▶ 투자등급 비율

BUY : 88.7% HOLD : 11.3% SELL : 0.0%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